

11. 제자를 부르심(2011. 9. 1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기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4:18~20]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애청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자기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따라갔으니깐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과정을 살펴보고서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애청자들과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는 기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사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제자 삼으신 사실이 세 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연대순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외칩니다. 그 이튿날도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침례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고 그 후에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야고보를 데려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한 기록하기를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데려왔다는 말에, 요한도 그 후에 자기 형을 데려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빌립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은 첫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매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처음 부름입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와 보라”고 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침례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봉사의 본부를 옮깁니다. 오늘 시작할 때 봉독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으

로 전도 본부를 옮기시며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 보라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는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생활을 위한 직업을 그만 두고 전적으로 제자로서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사정입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눅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아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지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구름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을 해변에 두시고 강론하셨습니다. 그 도안 베드로는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 안드레는 침례요한의 제자였지요. 또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소개하고 예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침례요한의 옥에 면회도 가지 않고 슬그머니 갈릴리 지방으로 와버렸거든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구명운동은 못한다 해도 면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유대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피해버린 것 같이 보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계속 있어야 할 것인지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어쨌면 밤에 그물을 던지며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로 더불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비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해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시고 해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어쨌면 간간히 예수님의 말씀이 귓결을 스치면 속으로 말을 참 잘하는데 행동을 그게 무어야. 침례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면회도 안 가고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을 온단 말입니까 라고 투덜거렸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 베드로는 그물을 다 씻었고 예수님의 강론도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에서 내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고 자기는 어부가 아닙니까. 바다에 대하여서나 그물질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선생이지요. 그런데 목수 예수가 그것도 해가 돋는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난센스에 속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려거든 그물을 씻기 전에 말씀해야 되지요. 어느 모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순간적으로 속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 그랬더니 엄청 많은 고기가 걸렸습니다.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기는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잡히 고기로부터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선생님이 자기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보았을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곧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5:8)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5절에서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여기는데서 자기의 주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4:18부터 있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으며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수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일한 권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고 달리 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합리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그렇게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신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이 유일한 합리성입니다.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에서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정신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를 배우도록 부르신 것이고 이때에 이들은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자기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유대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께서 천국복음 전파하는 것을 견학하며 배우고 실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예수께서 전파한 그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귀신이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대견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복종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눅10:20)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잘한다고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부르신 것은 12 사람을 택하시고 사도라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6:12~16]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16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을 택하여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부릴 사(使)자와 무리 도(徒)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지요. 심부름꾼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킨 사람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의지를 나타내지 말아야 하고 시킨 사람의 일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을 증거할 자들로 부리심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외의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먹고 살지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날 심판 날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을 세 단계로 부르신 것을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4장 18부터 기록된 사실, 마가1:16절 이하에 기록된 것과 누가 5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신 사실입니다. 첫 단계는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동거 동행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고 함께 일하며 배우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배운 것을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단계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은 곧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의 직분, 곧 철저한 예수님의 심부름꾼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즉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아포스텔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포스텔로는 보낸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명사가 아포스텔로스입니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그의 “보내신 자”가 바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요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냈다는 말은 모두 아포스텔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습니다.

[요5:30]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면 하실 그것들만 하셨다고 합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단계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명을 받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 즉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유는 생명이 소실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든지 구타를 당하든지 다치든지 이 모든 경우는 생명이 사그라지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죄의 고통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고통입니다. 우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5,6)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은 이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외의 모든 사도들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죄의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순교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는 밧모 섬에 유배 가서 어느 날 특별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요한 당시로부터 세상 끝 곧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12 사도보다 늦게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잘 풀어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상을 분명히 알도록 잘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마태와 요한은 각기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요한은 복음서 외에 계시록과 요한 편지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편지서를 기록하여 믿음의 도리를 풍성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도가 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갈릴리 어느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28:19,20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15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차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습니다. 1:8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차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차례를 잘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로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제자를 삼았으며 그 제자들은 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 증인 되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날마다 생활, 곧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께서 세 단계로 제자를 부르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단계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단계 셋째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와 생활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그런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제자로서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답게 증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